

LG생활건강, 시장 컨센서스 충족

삼성증권, 2/4분기 영업이익 14.2% 증가 ... 아모레는 2009년 수익개선

삼성증권은 7월9일 화장품업종에 대해 2/4분기 영업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비중확대를 제시하고 아모레퍼시픽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

박자미 애널리스트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양사의 2/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9.8%, 14.2% 증가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우수한 영업실적은 대외 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에도 2/4분기 화장품 소비는 양호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증가세가 매출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2009년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8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높은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2008년 P/E 28.7배(글로벌 동종 업체 평균 대비 48% 할증)로 부담스러운 수준이어서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20만7000원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09>